

## 케이팝과 이슬람의 만남:

인도네시아 무슬림 청년들의 문화적 수용과 종교적 대응

- 경의영 (GP 선교회)

### 들어가는 말

2000년대 이후 한국의 드라마를 시작으로 'K'로 대표되는 한국의 현대적 대중문화는 세계화의 흐름 속에서 아시아를 넘어 전 세계로 확산되는 놀라운 성과를 만들어 내었다. 이 과정에서 '동(East)'에서 시작된 문화가 전 세계로 확산되는 현상은 기존의 '서구에서 비서구로'라는 문화 확산의 방향과는 다른 새로운 의미를 가지며, 이는 단순한 문화적 흐름을 넘어 전 지구적 가치와 영향력을 창출하고 있다. 특히 이러한 문화적 영향력은 선교적 관점에서 주목할 만한데, 문화적 가교로서의 한류가 복음 전파의 새로운 통로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한류의 전 세계적 유행과 확산은 경제적 측면뿐 아니라 다양한 학문적 연구의 주제가 되고 있다. 특히 한류가 가지는 심층적 의미와 그 이유, 그리고 이를 둘러싼 사회적 맥락을 탐구하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3] 그러나 기존 연구들은 주로 한류의 경제적 효과나 문화적 영향력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종교적 맥락에서의 영향과 의미, 특히 선교적 접근 가능성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한류의 확산이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수용되고 있는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어떤 관계를 형성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4] 특히, 케이팝 커버 댄스에 참여하는 무슬림 여성 젊은이들이 보여주는 문화적 수용과 이에 대한 종교적 반발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들은 케이팝을 단순히 소비하는 것을 넘어 안무를 카피하고 팀을 구성하여 활동하며, 이를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세계적인 흐름에 동참하려는 욕구를 드러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활동은 이슬람의 종교적 규범과 충돌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종교적 회귀를 강조하는 '히즈라'[5] 케이팝 (Hijrah K-pop)'과 같은 반대 현상도 등장하고 있다.[6]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두 가지 목적을 가진다. 첫째, 케이팝 커버 댄스와 히즈라 케이팝이라는 두 현상을 통해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의 종교, 사회, 문화적 맥락 속에서 벌어지는 갈등과 긴장을 이해하고자 한다. 둘째, 이러한 문화적 갈등과 종교적 회귀 현상이 선교적 관점에서 어떤 기회를 제공하는지를 탐구하고자 한다. 특히 문화적



매개체를 통한 접근, 관계적 전도의 가능성, 그리고 무슬림 젊은이들의 정체성 재구성 과정에서 발견되는 복음 전파의 새로운 통로들을 모색하고자 한다.

본 연구의 의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찾을 수 있다. 하나는 학술적 측면으로, 세계화와 근대화의 흐름 속에서 무슬림 젊은이들이 기대하는 '세계성'[7]과 그들이 속해 있는 '지역성'의 발현, 그리고 그사이에 놓인 종교적 정체성을 심도 있게 이해하는 데 있다. 다른 하나는 선교적 측면으로, 한류라는 문화적 매개체를 통한 복음 전파의 가능성, 관계적 접근을 통한 선교 전략, 그리고 정체성의 변화 과정에서 발견되는 선교적 기회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데 있다. 이를 통해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 세대와 이슬람 안에서 야기되는 변화와 담론의 방향을 이해하고, 나아가 실천적이고 효과적인 선교적 접근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 연구방법

본 글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재구성한 것으로, 원 논문의 상세한 연구방법론적 기술은 본 저널의 성격과 목적에 맞게 핵심적인 내용만 간략히 요약하여 제시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2019년 4월부터 8월까지 인도네시아 족자카르타에서[8] 진행된 현장 연구를 바탕으로 한다. 질적 연구방법을 활용하여 무슬림 젊은이들의 한류 수용 현상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자 하였다. 주요 연구 참여자는 케이팝 커버 댄스팀에서 활동하는 무슬림 여학생들과 일반 한류 팬들이었으며, 이들과의 심층 인터뷰, 댄스 팀 활동에 대한 참여 관찰, 그리고 관련 SNS 자료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20년에는 '히즈라 케이팝' 운동과 관련하여 온라인 인터뷰와 SNS 콘텐츠 분석을 추가로 진행하였다.

케이팝 커버 댄스를 통해 본 무슬림 여학생들의 정체성 변화

2000년대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케이팝 커버 댄스는 단순한 한류 문화 수용을 넘어 젊은이들 사이의 일종의 '서브컬처'로 자리잡았다. 특히 무슬림 여학생들이 중심이 된 이 현상은 이슬람이라는 종교적 맥락에서 볼 때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 댄스커버 팀의 활동과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족자카르타의 C 팀을 중심으로 케이팝 커버 댄스 현상을 관찰하였다. C 팀은 10명 이상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 중 다수가 무슬림 여학생들이다. 멤버들의 구성을 살펴보면, 대학 재학생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고등학교 졸업 후 대학 진학을 준비하는 학생과 이미 졸업하여 직장 생활을 하는 멤버도 포함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팀 구성에 있어 종교적 배경이 제한 요소로 작용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C 팀의 경우 한 명의 카톨릭 신자를 제외하고는 모두 무슬림이지만, 이러한 종교적 차이가



팀 활동이나 멤버들 간의 관계에 어떠한 장애도 되지 않았다. 오히려 멤버들은 케이팝이라는 공통의 관심사를 중심으로 깊은 유대감을 형성하고 있었다.

"가족 같은", "친동생들 같은", "가족한테는 못하는 얘기를 할 수 있는", "함께 있으면 편안한", "마음을 털어놓는" 등의 표현들은 이들이 형성하고 있는 관계의 친밀도를 잘 보여준다. 현장 연구 당시(코로나 이전) 이들은 한 달에 최소 2-3 번의 공연에 참가했으며, 이를 위한 연습과 모임은 거의 일상적으로 이루어졌다. 인스타그램에 공유되는 내용들도 단순한 댄스팀 활동을 넘어 일상을 함께 보내는 모습들이 다수를 차지한다.

### 종교적 정체성과 현대 문화의 충돌

무슬림 여학생들의 케이팝 커버 댄스 활동은 필연적으로 이슬람의 종교적 규범과 충돌한다. 36 명의 한류 수용자들에 대한 인터뷰에서 특징적으로 발견되는 것은 현재 댄스 커버팀에 참여하고 있는 이들은 무슬림임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평소에도 Jilbab(질밥)[9]을 착용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C 팀의 멤버들 역시 동일했는데, 주목할 만한 것은 특정한 장소와 모임에 따라 선택적으로 Jilbab(질밥)을 착용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다.[10]

"네, 아마 나중에 결혼하게 될 때에야 댄스커버팀을 그만두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I-02)[11]

"네, 관계가 있어요. (신앙과 Jilbab(질밥) 착용의 문제에 대해) 보통 정말 자신이 준비되어 있을 때 착용하지요, 왜냐하면 Jilbab(질밥)을 착용한다는 것은 정말 많은 '희생'을 포함하거든요." (I-26)

특히 공연할 때의 복장은 미니스커트나 신체에 달라붙는 옷 등으로 다리나 허리가 노출되는 경우가 많다. 이는 무슬림 여성이 지켜야 하는 '아우랏'(Aurat, 가려야 할 신체 부위)에 대한 규범과 명백히 충돌한다. 그러나 공연 후 일상에서 이들의 옷차림은 Jilbab(질밥)을 착용하지 않을 뿐 여느 대학생과 다름없는 편이다.

"나는 꼬루둥을 (Kerudung) 착용할 준비가 안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아직 춤을 추고 싶거든요. 춤춘다는 것은 꼬루둥을 쓰지 않는 거잖아요." (I-28)

하루 다섯 번의 기도 의무 준수에 대해서도 일부 멤버들은 'Bolong-bolong'(중간중간 비어있는 것을 의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며 매번 지키지는 않는다고 진술한다. 그러나 이런 종교적 의무 실천의 미비가 한류의 영향 때문은 아니라고 부정한다. 다른 댄스커버팀 참여자들 중에는 기도와 금식 등을 꼭 지킨다고 하고, 주변의 일반적인 무슬림 친구들 중에도 다섯 번의 기도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고 하니 종교적 의무 실행의 정도를 한류와 연관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들에게 케이팝 댄스와 공연은 자신의 취미 활동일 뿐이며 이를 종교적 규범과 신앙으로 연결시키는 것은 부당하다고 말한다.

"...예를 들면 케이팝은 그저 엔터테인먼트일 뿐이에요. 그래서 신앙에서 벗어나게 만든다고 볼 수 없어요, 문화라는 게 다 다르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잘못된 것이라고 하면 안되지요..." (I-28)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자신들의 활동이 이슬람 규범에서 벗어난다는 것을 인식하면서도, 이를 종교적 정체성의 약화나 부정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오히려 이들에게 있어 케이팝 댄스는 "현대적", "창의적", "프로페셔널한" 가치를 추구하는 수단으로 인식된다.

### 무슬림 여성들의 자기표현 공간으로서의 의미

케이팝 커버 댄스와 공연은 무슬림 여성들에게 특별한 의미의 공간을 제공한다. 이는 단순한 문화 활동을 넘어 자아실현과 표현의 장으로 기능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와 참여 관찰을 통해 발견된 표현들은 이를 잘 보여준다:

"제가 아이돌이 되는 느낌이에요." (I-22) "저의 탤런트를 발견해요." (I-13) "춤을 추고 공연을 하는 것은 정말 즐거운 일이에요." (I-19) "무대 위에서 서는 게 중독처럼 느껴져요. 계속 무대 위에서 서고 싶어져요." (I-33) "새로운 친구를 사귀고 분위기가 새로워져요." (I-37) "예전에는 내성적이었는데 자신감을 얻었어요." (I-37) "무대에서 서서 공연하면 행복해져요." (I-38)

이들의 표현을 정리해보면 케이팝 커버 댄스와 공연은 자신의 재능을 발견하고 동료들과 함께 협력하며 그 노력의 결과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자아실현과 표출이 이루어지는 형식과 공간임을 알 수 있다. 특히 '공연'이라는 형식을 통해 관중들로부터의 호응과 지지를 받으며 이런 느낌과 인식은 더욱 강화되는 것으로 보인다.[12]

한류와 연관된 표현 중 특징적인 것은 바로 '현대적'(Modern)이라는 표현이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국 드라마, 영화, 케이팝 등을 통해 접하는 한국 사회와 문화를 '현대적'으로 묘사하고 선호하는 경향을 보인다. 미국과 유럽의 서양 사회의 문명과 발전을 현대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심층 인터뷰를 통해 발견하는 것은 이들이 한류, 즉 한국 사회를 자신들이(동양이며 이슬람이라는 종교 배경을 가진) 받아들일 수 있는 '현대적 사회와 문화'라고 보는 듯하다.

"개인의 선택이기 때문에 문제가 될 수 없어요. 만약('Jilbab' Jilbab(질밥)을) 착용토록 주변에서 강제한다면 오히려 그것이 잘못된 것이에요. 강제한다면 오히려 그사람이 더 싫어하고 반감으로 벗어나버릴 수도 있어요." (I-09)



특히 무대 위의 무슬림 여학생들의 춤과 의상은 무슬림 여성으로서의 일상적 규범, 즉 몸과 옷차림에 대한 제한과 규제가 풀어지는 '일시적' 시공간이며, 그것이 관중들(함께하는 Jilbab(질باب)을 착용한 무슬림 여성들)의 환호와 지지 속에 연대함으로 '허용'되는 상징성을 갖는다.

무슬림 남성들이 자신들의 옷차림이나 행위에 많은 제약을 받지 않고, 스포츠 등 다양한 사회 활동 영역에서 자신의 남성성을 표출할 수 있는 반면, 무슬림 여성들에게는 상대적으로 그 영역이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케이팝 커버 댄스의 공연이라는 장(場)은 여성들에게 '안전하고', '함께하고', '소리지르고', '이야기하고', '세계의 유행과 함께하며', '춤으로 표현할 수 있는' 적극적 선택의 문화형태인 것이다.[13]

### 선교적 관점에서의 시사점

케이팝 커버 댄스 현상을 통해 드러나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성들의 변화는 선교적 관점에서 중요한 시사점들을 제공한다.

첫째, 이제는 한국의 케이팝 유행이 아닌 인도네시아 무슬림 여학생들이 선택하고 형성한 자신들의 '서브컬처'로서 기능하고 있다. 케이팝의 팬으로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케이팝을 선택하여 자신들의 '것'으로서 '자문화' 가운데에는 부족하거나 존재하지 않고, 표출될 수 없던 '세계성'의 내용들을 - '현대적인', '자아실현의', '표현할 수 있는 자유의', '세계와 공유하는', '보다 나은 가치의' - 자신들의 '지역성' 속에 끌어들이는 상징의 의미로 파악된다.

둘째, 이들이 한국 문화를 '현대적'이면서도 '저속하지 않은' 것으로 수용하는 태도는 문화적 가교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인터뷰 대상자들은 한국 사회의 어두운 면이나 이슬람 종교에 위배되는 사항들을 잘 인식하고 있지만, 문화의 차이로 인식하며 오히려 좋은 가치와 문화를 받아들여야 한다고 언급한다.

셋째, 이들의 종교적 정체성과 현대 문화 수용 사이의 균형 잡기는 복음 전달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이들은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으면서도, 현대적 가치와 문화를 수용하는 방식을 찾아가고 있다. 이는 복음의 문화적 상황화(contextualization)에 있어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넷째, 댄스팀이라는 공동체를 통해 형성되는 깊은 관계성은 관계적 전도 접근의 가능성을 보여준다. 종교적 배경의 차이를 넘어서는 진정한 우정과 신뢰 관계의 형성은, 복음 전달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이러한 현상은 세계화와 근대화 속에서 무슬림 젊은이들이 경험하는 정체성의 변화와 갈등을 보여준다. 이들은 더 이상 일방적인 '세계화'의 대상이 아니며, 자신들의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능동적으로 현대 문화를 수용하고 재해석하고 있다.



선교적 관점에서 이러한 변화는 도전이자 기회이다. 전통적인 종교적 권위의 약화와 개인의 주체성 강화는 이슬람 사회 안에서의 새로운 선교적 접근의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문화적 매개체를 통한 접근, 공동체 형성을 통한 관계적 전도, 그리고 현대적 가치와 신앙의 조화를 보여주는 실제적인 모델의 제시가 중요할 것이다.

동시에 이러한 접근은 신중하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문화적 변화가 반드시 종교적 개방성으로 이어지는 않으며, 오히려 정체성의 혼란은 더 강한 종교적 회귀를 불러올 수도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류를 단순한 매개체로 사용하기 보다 이들의 문화적 변화와 정체성 형성 과정을 깊이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지혜로운 선교적 접근이 필요할 것이다.

### 히즈라 케이팝 운동을 통해 본 종교적 회귀 현상

한류의 확산과 케이팝 커버 댄스 문화가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에서 하나의 서브컬처로 자리잡고 있는 한편, 이에 대한 반작용으로서의 움직임도 동시에 일어나고 있다. 반한류 현상은 일반적으로 두 가지 측면에서 작동한다. 하나는 자문화 중심 시각에서 한류를 문화제국주의, 경제적 침략으로 보는 관점이며, 두 번째는 인도네시아의 이슬람 입장에서 한류의 비이슬람적 가치와 요소들을 문제 삼는 것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주목하는 '히즈라 케이팝' 현상은 이러한 일반적인 반한류 움직임과는 구별된다. '히즈라'는 이슬람의 종교적 시작점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 용어로, 선지자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며 본격적인 이슬람 공동체를 시작한 사건을 'Hijrah'(히즈라)라고 한다. 따라서 '히즈라 케이팝'이란 '케이팝'으로부터 떠나서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무슬림 한류 수용자들을 향한 일종의 종교적 각성 운동인 것이다.

#### Hijrahkpop.id 와 Kpopershijrah - 인스타그램에서 진행되는 히즈라 캠페인

본 연구에서는 인스타그램에서 활발히 활동하는 두 개의 계정, Hijrahkpop.id 와 kopershijrah 를 중심으로 히즈라 케이팝 현상을 분석하였다. Hijrahkpop.id 는 약 12,100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자카르타를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계정은 자신들을 'X-KPOPERS bukan HATERS'(증오자가 아닌 엑스케이퍼퍼스)로 소개하고 있다. kopershijrah 는 이보다 더 많은 31,800 명의 팔로워를 보유하고 있으며, 블로그와 유튜브 채널도 함께 운영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kopershijrah 계정의 소개글이다: "Hi Chingeudeul Let's back to Muslim Identity | Back to Allah | Back to Islam | Back to Al Quran". 이들은 "#goodbyeoppa"(잘가! 오빠~)라는 해시태그를 사용하며, 케이팝 팬들에게 친숙한 한국어 표현을 활용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 두 계정의 운영자들은 모두 자신들이 과거 열성적인 케이팝 팬이었다고 밝히고 있으며, 2017 년경부터 히즈라 계정을 운영해왔다고 한다.



이 운동이 일반적인 반한류 현상과 구별되는 점은, 한류 자체에 대한 부정이나 비판보다는 무슬림으로서의 정체성 회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다. 두 계정의 운영자들과의 온라인 인터뷰와 그들의 SNS 활동 분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한류가 지닌 긍정적 측면들을 인정한다. '창의적이고', '노력하고', '진지하고' 등 다른 한류 수용자들이 언급하는 것과 동일한 표현들을 사용하며, 케이팝 '오빠'들을 통해 얻었던 긍정적 경험들을 부정하지 않는다.

둘째, 이들의 캠페인은 '반한류'가 아닌 종교적 각성에 초점을 둔다. 자신의 신앙에 충실하고 꾸란을 진지하게 읽으며 '알라'(Allah)를 우선으로 하는 삶은 자연스럽게 케이팝이나 한류와 같은 비무슬림 문화로부터 거리를 두게 된다는 입장이다.

### 히즈라 케이팝 운동의 특징과 전개 방식

히즈라 케이팝 운동은 그 내용과 접근 방식에서 주목할 만한 특징들을 보여준다. 우선, 이 운동은 케이팝과 한류가 특히 무슬림 여성, 더 나아가 십대들에게 큰 영향을 준다고 본다. 아이돌 그룹의 외모(오빠들)에 십대 소녀들이 마음을 빼앗기고 쉽게 영향을 받는다고 진술한다. 따라서 이들의 대상도 방식도 무슬림 십대 여학생들에게 초점을 맞추며, 포스팅의 내용에는 무슬림 남성에 대한 언급은 전혀 찾아볼 수 없었다.

한류, 케이팝에 좋은 것들이 있지만 이것들은 '세상적인 기쁨', '소모되는 것'이며 그 반대로 신앙은 영속적인 것이며 '알라'(Allah)를 기쁘게 하는 것으로 대비된다. 이들의 포스팅은 짧은 카드 형식으로 이루어지는데 자주 등장하는 단어가 'Oppa'(오빠)이다. 전(Ex) KPop 팬으로서 이들은 자신의 경험을 나누는 방식으로 '설득'하고 포스팅의 내용에 '한류 친화적' 단어들을 자주 사용하며 무슬림 여학생들과 공감을 형성한다. "진짜", "화이팅", "괜찮아", "사랑해" 등, 포스팅 그림만 보면 '한류 수용자'의 글처럼 보이거나 그림 카드와 연결된 내용을 읽어보면 '당신도 히즈라할 수 있다'는 격려와 응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히즈라 케이팝 캠페인이 온라인상에서만 운영된다는 것이다. 오프라인상에서의 조직과 활동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케이팝 경연대회나 공공장소에서의 한류 행사가 대중에게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보이콧이나 스폰서 회사, 단체 등에 의견을 피력하는 활동은 하지 않는다. 그 이유로 이런 공개적인 행위는 이슬람의 'Dakwah'[14]의 가치와 정신에 위배되는 '거친' 행위로서 오히려 사람들을 이슬람으로부터 멀어지게 할 수 있다고 설명한다. 대신 오프라인에서는 주로 소수의 관심 있는 사람들끼리 꾸란을 공부하거나 사회 활동에 머문다고 한다.

### 히즈라 케이팝 운동이 갖는 선교적 함의

히즈라 케이팝 운동이 갖는 방식과 내용은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첫째, 이 캠페인의 주도자가 종교 권위자나 전문인이 아닌 일반적인 한류 수용자였던 일종의



'평범한' 젊은 무슬림 여학생들이라는 점이다. 한류 수용자들이 자신의 선택과 결정에 있어 종교 지도자나 부모가 아닌 자신의 주체적 인식과 권리를 내세우는 것처럼, 히즈라 케이팝 운영자들도 스스로의 성찰적, 자발적 인식 가운데 선택한 것이라는 점에서 이 정반대의 두 현상은 수직적 권위의 전통적 작동방식을 탈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둘째, 앞서 언급한 것처럼 히즈라 케이팝은 비판과 비난, 논증이 아닌 '자기 경험의 나눔'이나 '상기시켜주는' 방식으로 대상자가 스스로 생각하고 결정, 행동하도록 대상자의 주체적 성찰에 맡긴다. 한류와 케이팝 수용자들의 모임과 참여가 자발적이며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많은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처럼, 히즈라 케이팝 역시 온라인 플랫폼을 바탕으로 고민과 의견을 나누며 동질성을 공유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셋째, 두 개의 현상 모두 종교적 정체성의 문제를 중심으로 벌어지고 있으며, 고착되고 부여된 종교적 정체성에서 한류를 접하고 경험하며 자신들의 주체적 선택에 의한 무슬림으로서의 종교성을 '형성해가고'(Becoming) 있다는 점이다.[15] 세계화와 근대화라는 상황 속에서 한류 수용자들은 종교적 정체성의 '현대화'(Modern Muslim)를 지향하는 반면, 히즈라 케이팝은 이것을 종교적 정체성의 타협으로 보며 오히려 경험한 '세계성'에 대한 성찰과 함께 스스로 '종교성'을 중심으로 '진정한(Kaffah) 무슬림'을 지향한다.[16]

### 선교적 접근을 위한 새로운 통찰

히즈라 케이팝 운동의 발생과 전개 방식은 현대 무슬림 젊은이들을 향한 선교적 접근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특히 이 운동이 보여주는 특징들은 기존의 선교적 접근 방식에 대한 재고와 함께 새로운 가능성을 시사한다.

첫째, 히즈라 케이팝의 '종교성'의 선택과 발현이 이슬람 근본주의(Fundamental Islam)에 기인한 것이 아닌 온건주의 이슬람(Moderate Islam)의 경계 내에서 표방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는 강압적이거나 극단적인 방식이 아닌, 개인의 자발적 선택과 성찰을 중시하는 현대 무슬림 젊은이들의 특성을 보여준다.[17]

둘째, 이 운동이 보여주는 '경험 공유'와 '관계적 접근' 방식은 선교적 소통에 있어 중요한 모델이 될 수 있다. 교리적 논쟁이나 비판이 아닌, 자신의 경험과 변화를 진정성 있게 나누는 방식은 현대 젊은이들에게 더 효과적으로 다가갈 수 있다.

셋째, 온라인 플랫폼의 전략적 활용은 선교적 접근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 특히 젊은 세대의 언어와 문화를 이해하고 활용하는 방식은 주목할 만하다. "Hi Chingeudeul"과 같은 표현의 사용이나, 케이팝 팬들의 정서를 이해하는 접근은 효과적인 소통 방식을 보여준다.



넷째, 이 운동이 보여주는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은 복음 전달에 있어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세계화 속에서 무슬림 젊은이들은 더 이상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복음은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 아닌, 정체성의 총체적 변화와 재구성의 관점에서 접근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히즈라 케이팝 운동은 문화와 종교의 관계에 대한 중요한 질문을 제기한다. 세계화 시대에 종교의 두드러졌던 권한과 역할이 더욱 다극화, 분화, 개인화되어 가는 가운데, 복음의 문화적 상황화는 더욱 중요한 과제가 될 것이다. 이는 문화적 접근성과 종교적 진정성 사이의 균형을 어떻게 이루어낼 것인가라는 선교적 과제를 제시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히즈라 케이팝 운동은 단순한 반한류 현상이 아닌, 현대 무슬림 젊은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종교적 회귀 현상을 이해하는 중요한 창구가 된다. 이를 통해 우리는 보다 효과적이고 상황화된 선교적 접근 방식을 모색할 수 있을 것이다.

### 맺음말

본 연구는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 사이의 케이팝 커버 댄스 문화와 히즈라 케이팝 현상을 통해 세계화 시대의 문화 수용과 종교적 정체성의 역동적 관계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현상들은 단순한 문화적 충돌이나 종교적 갈등을 넘어, 현대 무슬림 젊은이들의 정체성 형성 과정과 선교적 접근의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은 선교적 함의를 제시한다. 첫째, 문화적 매개체로서의 한류는 단순한 선교 도구를 넘어 관계 형성과 가치관 공유의 중요한 통로가 될 수 있다. 특히 무슬림 여성들에게 자기표현과 실현의 공간을 제공하는 케이팝 커버 댄스 문화는, 기존의 종교적 규범과 현대적 가치 사이에서 새로운 정체성을 모색하는 장이 되고 있다.

둘째, 히즈라 케이팝 운동이 보여주는 자발적이고 관계적인 접근 방식은 선교적 소통의 새로운 모델을 제시한다. 교리적 논쟁이나 비판이 아닌, 경험의 공유와 공감을 통한 접근은 현대 젊은이들과의 효과적인 소통 방식이 될 수 있다.

셋째, 두 현상 모두에서 발견되는 '정체성의 재구성' 과정은 복음의 문화적 상황화에 중요한 통찰을 제공한다. 세계화 속에서 무슬림 젊은이들은 더 이상 단일하고 고정된 정체성이 아닌, 다층적이고 유동적인 정체성을 형성해가고 있다. 이는 복음 전달이 단순한 종교적 전환이 아닌, 정체성의 총체적 변화와 재구성의 관점에서 접근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향후 선교적 접근을 위해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문화적 매개체를 통한 접근에 있어 단기적 효과보다는 장기적인 관계 형성과 신뢰 구축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둘째, 온라인 플랫폼의 전략적 활용과 함께 오프라인에서의 진정성 있는 만남과 교제가 병행되어야 한다. 셋째, 현대 무슬림 젊은이들의 다층적 정체성을 이해하고, 이에 기반한 상황화된 복음 전달 방식을 개발해야 한다.



본 연구는 문화인류학적 관점에서 현상을 관찰하고 분석했지만, 이를 통해 발견된 통찰들은 선교적 접근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한다. 특히 인도네시아의 이슬람이 중동 지역과는 달리 다원성과 포용성의 바탕 위에 존재한다는 점은, 문화적 접근을 통한 선교적 가능성을 더욱 높여준다. 향후 이러한 통찰들이 실제적인 선교 전략 수립과 현장 적용으로 이어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

[1] 본 논문은 필자의 박사학위 논문 연구의 일부를 바탕으로 작성된 "인도네시아 무슬림 젊은이들의 '세계성'과 '종교성'의 문제-케이팝 댄스 커버와 히즈라 케이팝 현상" (*Muslim-Christian Encounter*, 14(1), 2021, 115-156)의 내용을 전방개척선교저널의 성격과 목적에 맞추어 선교 전략적 관점에서 재구성한 것임.

[2] 정의영 선교사는 1993년 조이선교회에서 대학생 캠퍼스 사역을 시작하였고, 2001년부터 13년간 인도네시아 JOY에서 사역하며 Gadjah Mada 국립대학교에서 문화인류학 석사 학위를 취득, 2014년부터는 GP(Global Partners) 말레이시아 국제훈련원에서 선교사 훈련과 현장연구를 담당하였다. 말레이시아 국립대학교(University of Malaya)에서 Ph.D. 과정 중이며 현재는 한국 본부로 옮겨 선교 현장 연구와 전략 수립 업무를 맡고 있다.

[3] 한류 현상과 관련한 한국인 중심의 연구 관점과 방식으로 이루어져 온 그동안의 연구에 대해 김형준은 다섯가지로 정리하였고, 향후 확장, 발전되어야 할 방식으로 '인류학적' 접근과 연구를 제안하고 있다. 김형준, "대중문화를 통한 한국이미지의 형성과 소비: 인도네시아 네티즌의 사례", *비교문화연구* 14-1(2008), 124-127

[4] 인도네시아는 세계 여러 나라 중에서도 한류의 유행과 확산에 있고 고성장 국가에 속한다. 한국문화산업교류재단 연구팀, 『2016-2017 글로벌 한류실태조사』 (서울: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 2016), 49.

[5] '히즈라'는 이슬람의 종교적 시작점과 같은 역사적 의미를 갖는데 선지자 무하마드가 메카에서 메디나로 이주하며 본격적인 이슬람 공동체를 시작한 것을 'Hijrah'(히즈라)라고 한다. 따라서 히즈라 케이팝이라는 것은 '케이팝'으로부터 떠나서 이슬람의 근본으로 돌아가자는 무슬림 한류 수용자들을 향한 일종의 종교적 각성 운동인 것이다. 아랍어의 본래적 의미는 '이주'(Migration)이다. <https://www.britannica.com/event/Hijrah-Islam> (2020년 12월 24일 접속)

[6] 반한류 현상과 관련된 연구로는 다음을 참고하라.

김수정, 김은준. "동남아시아 반한류에 나타난 문화적 갈등과 특성", *[동남아시아연구]* 26-3(2016), 1-50.



박지현. “인도네시아 한류 수용의 변화와 특성 : 한류 팬 커뮤니티 ‘한사모’를 중심으로”(석사학위 논문. 서울대학교), 2016

인도네시아 입장에서 한류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학사 논문이 주류이고 그 다음이 석사 논문이며 분야로는 주로 국제관계, 경영, 한국어, 미디어학, 사회학, 인류학 관련에서 다룬 것들이다. 주로 한류를 ‘외래 문화’로 보며 문화제국주의, 문화사업, 소프트 파워 등의 이분법적 도식의 접근이 주를 이룬다. 가자마다 대학의(University of Gadjah Mada, 인도네시아의 국립대학) 온라인 도서관에서 "Hallyu"와 "K-pop"으로 검색했을 때 결과는 Hallyu 관련이 총 16 개(학사 8, 석사 8), "K-pop"의 경우 36 개(학사 24, 석사 12)였다. 인도네시아 대학에서는 학사 과정에서 졸업 요건 중의 하나가 학사 논문이기에 한류 관련해서는 아직까지 학부생들의 논문이 다수를 차지한다.

[http://lib.ugm.ac.id/ind/?page\\_id=248](http://lib.ugm.ac.id/ind/?page_id=248) (2020 년 12 월 30 일 접속)

[7] Merriam-Webster 사전의 ‘globality’에 대한 정의는 ‘the condition of being global’이며, 이 개념은 사회학자인 Roland Robertson 에 의해 소개되었다. Roland Robertson, “Globality and Modernity”, Theory, Culture & Society 9-2(1992): 153-161

‘세계화’(globalization)가 그 과정과 정도를 담아내는 단어라면 세계성(globality)은 세계화로 인해 형성, 이미 존재하는(global reality) 것으로써, 그래서 개인들이 자신의 지역성을 넘어 인지하는 연결된 사회적 조건의 ‘세계’를 의미한다. 본 글에서는 무슬림 젊은이들이 속한 지역 사회, 문화에 대비되는 보다 현대적이며 국가를 넘어서는 보편적 가치와 문화의 공유라는 측면에서 ‘세계성’이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8] 족자카르타는 인도네시아의 교육도시로 불리우며 인도네시아 전역에서 고등교육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유학을 오는 곳이다. 대략 110 여개의 고등교육 기관(전문대, 대학교)과 30 여만명의 대학생이 존재하는 것으로 추산된다. 절대적인 학생수는 자카르타(수도)가 더 많은 것으로 나오지만 족자카르타 도시의 면적과 인구수에 비하면 학생비율이 월등히 높으며 이에 따라 생활, 문화도 학생 중심의 독특한 환경을 형성하고 있다. 족자카르타의 교육관련 통계자료는 다음의 주소를 참조하라.

<https://www.bps.go.id/statictable/2015/09/14/1839/jumlah-perguruan-tinggi-mahasiswa-dan-tenaga-edukatif-negeri-dan-swasta-di-bawah-kementrian-pendidikan-dan-kebudayaan-menurut-provinsi-2013-2014-2014-2015.html> / (2020 년 6 월 15 일 접속)

[9] 무슬림 여성들은 천으로 머리를 가리고, 몸매도(‘Aurat’(아우랏) 여성으로서 가려야 되는 신체의 모든 부분) 역시 드러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에 사용되는 천을 비롯하여 전체적인 이런 옷차림과 방식을 ‘Hijab’(히잡), ‘Jilbab’(질밥), ‘Kerudung’(끄루둥)으로 표현한다. 엄밀하게 이 세 단어는 약간씩 차이를 갖는다고 하나 일상에서 이 셋은 혼용되어 사용된다. 자세한 내용은 <https://sumsel.tribunnews.com/2017/11/27/hijab-belum-tentu>



jilbab-biar-enggak-bingung-ini-persamaan-dan-bedanya 참고하라.(2020 년 6 월 22 일 접속)

인터뷰 대상자들의 녹취록에는 히잡이 83 회, 질밥이 158 회, 꼬루둥이 16 회 언급되었고, 맥락은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인터뷰 대상자들의 인용문에서는 원래 사용된 단어를 그대로 사용했고, 본 연구자가 언급할 때는 질밥을 대표하는 용어로 사용하였다.

[10] 히잡 착용과 무슬림의 정체성에 대한 이슈에 관한 기사:

<https://www.wjtoday.com/berita/8869/komunitas-menyesak-hijrah-indonesia-ajak-no-hijab-day-di-medsos> (2020 년 6 월 22 일 접속)

[11] 본 글에서 인터뷰 대상자의 발언을 인용할 때는 익명으로 처리, 'I-숫자'로 구분하여 표시하였다.

[12] 케이팝 커버 댄스 팀은 한국의 특정 아이돌 그룹의 팬이 아니다. 케이팝 노래와 춤을 '차용'할 뿐이며 선택하는 아이돌 그룹과 노래는 수시로 바뀐다.

[13] 팬덤 문화와 공연이 각각의 섹슈얼리티를 중심으로 어떤 의미와 역할로 관계되는지에 대한 연구로는 이지은, “팬덤과 섹슈얼리티 관계 연구 - ‘아사노 타다노부’ 팬덤 문화 분석을 중심으로-”, (석사 논문, 서강대학교), 2004 을 참고하라.

[14] Dakwah 에 대한 정의는 “the invitation, addressed to men by God and the prophets, to believe in the true religion, Islam” 또는 “Islamic propaganda / Islamic Mission”으로 정의된다. Bernard Johan Boland, *The Struggle of Islam in Modern Indonesia*(The Hague: Martinys Nijhoff, 1971), 190.

[15] Jones and McEwen, "A Conceptual Model of Multiple Dimensions of Identity," *Journal of College Student Development* 41-4(2000), 405-414; Saroglou and Mathijsen, "Religion, multiple identities, and acculturation," *Archive for the Psychology of Religion* 29-1(2007), 177-198.

[16] Kaffah 는 꾸란 (2:208)에 나오는 용어로, 영어 단어로는 ‘whole-heartedly’로 번역되었다.

[17] 인도네시아의 사례는 아니지만 유럽 각국의 젊은이들의 종교성에 대해 조사한 *Youth in Europe III* 는 종교적 삶이 자신들이 속한 지역, 나라의 역사적, 문화적, 정치적 맥락과 깊이 연결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Hans-Georg Ziebertz, William K Kay, Ulrich Riegel(eds.), *Youth in Europe III*, (Münster: LIT, 2009), 43-44.